

F-05 연금 수령기 현금흐름과 세금

연금 개시 전후 생활비·세금·건강보험의 변화를 연도별로 확인합니다.

학습자용

생활 장면에서 출발해 개념·비교·행동·회복 순서로 익히는 본 학습자료

판본 1.0.0 · 기준일 2026-09-01 · 다음 점검 2026-12-01

일반 교육자료입니다. 실제 계약·신청·세금·연금에는 최신 공식 안내를 다시 확인하십시오.

1. 왜 배우는가

연금의 명목금액이 같아도 수령시기·방식·다른 소득·세금·건강보험에 따라 실제 쓸 수 있는 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. 제도별 기준은 바뀔 수 있으므로 계산과 공식확인을 분리해야 합니다.

연금수령 계획은 세전금액·원천징수·종합과세 여부·건강보험료 영향을 각각 확인합니다. 교육자료에서는 단일 세율이나 금액을 고정하지 않고 공식 계산과 상담 경로를 사용합니다.

2. 먼저 알아야 할 말

세전·세후 연금

표시된 연금액과 세금 등을 반영해 실제 받는 금액의 차이입니다.

생활 예: 연금별 원천징수와 신고 가능성을 확인합니다.

수령순서

여러 연금·금융자산을 어느 시점에 사용할지 정한 계획입니다.

생활 예: 연금 개시 전 공백과 큰 의료비 가능성을 함께 봅니다.

변동 기준

법령·소득·재산·수령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세금·보험료 조건입니다.

생활 예: 실제 수령 전 국세청과 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합니다.

3. 판단 순서

- 1단계. 연금별 세전 수령액과 개시연도를 적는다
- 2단계. 근로·사업·임대 등 다른 소득을 함께 놓는다
- 3단계. 세금과 건강보험 확인이 필요한 항목을 표시한다
- 4단계. 필수생활비·비상비용·여유지출의 재원을 나눈다
- 5단계. 매년 공식 재확인할 일정과 자료를 정한다

4. 맞는 예와 반대 예

비교 1

맞는 접근: 세전금액과 실제 사용할 금액을 구분하고 공식 계산을 확인한다

반대 접근: 예상연금액을 모두 합해 월생활비와 비교한다

이유: 세금·보험료·수령시점의 차이가 실제 현금흐름을 바꿀 수 있습니다.

비교 2

맞는 접근: 수령순서는 세금뿐 아니라 장수·유동성·유족보장을 함께 본다

반대 접근: 당장 세율이 낮은 계좌부터 모두 인출한다

이유: 한 기준만 최적화하면 장기소득과 비상유동성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.

5. 내가 해 보기

가상의 연금·근로·임대소득 자료에서 세전·세후 확인항목을 나누고 10년 수령순서표를 작성합니다.

- 가상자료에서 확인한 사실과 모르는 조건을 나눕니다.
- 비용·위험·권리·기간을 비교표에 적습니다.
- 결정과 이유, 추가로 확인할 공식 창구를 기록합니다.

가상자료만 사용합니다. 실제 소득·자산·부채·계좌번호·가족갈등·피해경험은 적거나 발표하지 않습니다.

6. 문제가 생겼다면

- 추가 송금·서명·해지·앱 조작을 멈춥니다.
- 계약서·설명서·화면·대화·거래내역 등 원본 기록을 보존합니다.
- 1332 금융감독원 금융상담
- 1355 국민연금 고객센터
- 1577-1000 국민건강보험공단
- 132 대한법률구조공단

7. 오늘의 한 행동

내 연금 예상액 옆에 '세전인지, 수령조건은 무엇인지'를 적습니다.

공식 근거와 이용 전 확인

국세청 연금소득 원천징수 안내

<https://www.nts.go.kr/nts/cm/cntnts/cntntsView.do?cntntslId=7888&mi=6452>

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보험료 모의계산

<https://www.nhis.or.kr/nhis/minwon/initCtrbCalcView.do>

국민연금 예상연금 모의계산

<https://csa.nps.or.kr/ohkd/ntpsidnty/anpntng/UHKD7701M0.do>

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

<https://100lifeplan.fss.or.kr/>

국가법령정보센터

<https://www.law.go.kr/>

일반 교육자료이며 개인별 계약·세금·법률·투자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. 실제 적용 전 최신 공식 원문을 확인합니다.